

↑ 코스피 2588.97 (+46.61)	↑ 코스닥 754.08 (+25.03)
↓ 금리 (연이자율) 2.935 (-0.004)	↓ 환율 (원/달러) 1373.55 (-5.85)

배추 135%, 오징어 33%, 굴가격 105% 급등 장바구니 담기 무섭다 10분기째 꺾달린 지갑

₩ 경제의 뒷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지 한달 여가 지났지만 금리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체감하는 사람은 드물다. 정작 우리가 먹고 사는 밥상물가부터 시작해 대출금리는 여전히 높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투자와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 수출 등 기업실적이 둔화하면서 소비도 줄고 있다. 민간 소비 회복이 더디지는 이유를 들여다봤다. /편집자주

〈上〉 소비부진

기준금리 인하에도 체감 어려워 밥상 물가, 여전히 높은 부담에 소매판매액 2년3개월 연속 감소 준내구재판매도 6분기째 하락

#. 서울시 혼자사는 김모(32)씨는 점심은 회사근처에서, 저녁은 집에서 해결한다. 점심시간 김모 씨는 동료들과 서울 한남동에서 저렴하다고 손꼽히는 식당에 줄을 선다. 밥값은 1만3000~1만6000원, 커피까지 마시면 2만원이다. 퇴근 길, 김모 씨는 배달 앱을 한참 들여다보다 집 근처 편의점에서 5000원짜리 도시락을 산다. 김모 씨는 "최대한 줄여도 하루 2만원은 넘게 든다"며 "배달음식은 (가격이) 부담돼 안킨지 오래고, 집에서 해먹는 것도 비싸 편의점 도시락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고 했다.

4일 통계청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올해 3분기(7~9월) 소매판매액 지수는 100.7로 1년 전과 비교해 1.9%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매판매액지수는 2022년 2분기(-0.2%) 꺾이기 시작한 10분기 연속 하락했다. 1995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오랫동안 감소흐름이 지속되는 모습이다.

소매판매액지수는 소비자들이 마트, 백화점, 자동차 판매점, 편의점 등에서 얼마나 많이 지출했는지 보여주는 지표로, 2020년 판매액(100)을 기준으로 한다. 10분기, 약 2년 3개월 동안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았다는 설명이다.

◆ '떨어져도 떨어지지 않는 '밥상물가'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은 배경에는 여전히 높은 물가가 자리한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에 따르면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4.65로 집계됐다. 1년 전과 비교하면 1.6% 높다. 물가가 상승해 본격적으로 기준



서울 서초구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배추가 판매되고 있다. /뉴스1

금리를 올리던 2021년 8월(108.63)과 비교하면 5.5% 오른 것으로, 2010년대 연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1.4%, 3년 4.2%)을 소폭 상회하는 수준이다.

문제는 밥상물가다. 소비자물가지수 중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지수는 9월 124.72로 2021년 8월(106.2)과 비교해 17.4% 올랐다. 전체 물가수준에 비해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가격이 높다는 분석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주식으로 먹는 쌀가격은 2021년 8월보다 11.6% 내린 반면 빵 가격은 22.3% 올랐다.

닭고기는 같은 기간 18.2%, 오징어는 32.7% 상승했다. 닭 한마리 가격이 8000원에서 9500원으로, 만원에 오징어 3마리였던 것이 오징어 2마리로 줄어든 것이다.

'금사과', '금배추'라고 불리는 이유도 있었다. 과일과 채소 및 해조 가격은 같은 기간 각각 27.9%, 45.8% 올랐다.

한때 금사과로 불리었던 사과가격은 2021년 8월과 비교해 올해 7월 64.2%나 올랐다가 9월 33.4% 떨어졌다. 굴 가격은 같은 기간 104.8% 올랐다. 굴 한 상자에 1만5000원하던 것이 3만원으로 올랐다.

배추가격은 같은 기간 134.5% 상승했다. 이전에는 1만원에 배추 3포기 살 수 있었다면 이제는 1포기 밖에 구매할 수 없다.

◆ "50% 세일도 지갑열기 겁나" 소비자들은 옷도 구매하지 않았다. 소매판매액지수 중 의류판매액 지수가 포함된 준내구재는 3분기 기준 4.7% 감소해 6분기 연속 하락했다.

(2면에 계속)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금투세 폐지 동의... 상법 개정도 추진”

이재명 민주당 대표 “주가 하락 주 원인은 정부정책 주가조작·지배권 남용 등 지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는 4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면서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4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꽤 오랫동안 미뤄왔던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다. 참 고민이 많았다”며 “금투세는 거래세를 폐지하거나 줄이는 대신에 대체해서 도입한 제도며, 그런 점에서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표는 ‘금투세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 주가



하락의 주 원인은 정부 정책이 있다. 지금 증시 위기를 들여다보면, 크게 네 가지 원인이 있고 다 정부여당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주가조작 ▲대주주 지배권 남용 ▲경제산업 정책 실종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증시 위기의 원인으로 지적했다.

우선, 이 대표는 “주가조작이 만연하다. 이 주식시장에서 시세조종, 그다음에 통정매매, 허위공시, 작전, 이런 것이 너무 횡행한다”며 “이런 시장에 누가 투자하겠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언급하며 “그런데도 처벌하지 않았으니, 전세계에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매우 불공정하고 불투명

한 시장이라는 것을 광고한 것이나 마찬가지가 됐는데, 이런 시장에 누가 투자하겠나”고 꼬집었다.

또 ‘우량주 장기 투자’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량주라고 믿고 장기 투자를 하고 있었더니, 대주주들이 지배권을 남용해가지고 물적 분할이니, 무슨 전환사채니, 이런 것 발행해서 알맹이를 썩다 빼먹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다”며 “순식간에 우량주가 ‘불량주’가 되니 어떻게 믿고 투자하겠나”라고 강조했다.

경제산업 정책 실종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전력 문제가 정말로 심각한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다”며 “경제산업의 미래가 불확실한데, 이런 나라 기업들에 무엇을 믿고 투자하겠나”라고 말했다. <4면에 계속> /서예진 기자 syj@



‘금투세 폐지’ 기대감에 코스피 들쭉

코스피가 전 거래일(2582.96)보다 46.61포인트(1.83%) 오른 2588.97에 장을 마감한 4일 이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729.05)보다 25.03포인트(3.43%) 급등한 754.08에 마감했다. /뉴스1

내년 예산안 677조 ... 약자복지 중점 지원

11년 만에 총리 대독 시정연설 건전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강조 지지율·김여사 특검법 언급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밝힌 677조원의 2025년도 예산안의 주요 키워드는 ▲맞춤형 약자복지 확충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글로벌 중추 외교의 4대 분야 등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임기 반환점(10일)을 앞두고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설명했다. 이날 시정연설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했다.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불참한 것은 11년 만의 일이다.

이날 시정연설에는 집권 2년 반 동안의 성과와 4대(연금·노동·교육·의료) 개혁의 당위성, 민생 예산 등 설명이 주로 담겼다. 최저치를 기록한 국정 지지율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정치적 현안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예산안에 대해 윤 대통령은 “효율적 재정 운용을 치열하게 고민하여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했다. 2025년도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 원”이라면서도 건전재정 기조와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4가지 키워드를 제시했다.

우선 첫 키워드인 ‘약자복지 확대’에 대해 “모든 복지사업 지원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내년에도 역대 최대인 6.4% 올려서 약자복지 확충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4인가구 생계급여액 상향(12만원 ↑) ▲양육비 국가 선제급여 도입 ▲공공주택 공급(25만2000호) ▲국가장학금 지원자 150만명으로 확대 등을 언급했다.

(6면에 계속) /서예진 기자 syj@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尹 “의료·연금개혁 반드시 완수” 의지 보였지만... 현실은 안갯속
▲민주 “11월은 김건희 특검의 달” 여론 전 총공세 /사진 뉴스1

▲與 중진 “당·대통령실 변화 필요...단합해야”
▲유엔 사무총장 “파병 온 북한군 러시아 주둔 매우 우려”



▲한동훈 “윤 사과·김 여사 활동 중단... 참모진 개편·개각 단행해야” /사진 뉴스1
▲‘딤페이커 컨트롤타워’ 여가부장관 8개월째 공석... 임명 건의도 없어